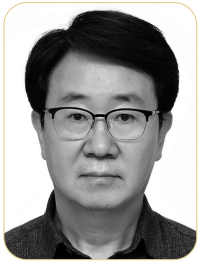
인 사 말



오 세 욱
(사)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/
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

안녕하십니까?

올해부터 2년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18대 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오세욱 교수입니다. 코로나 시국도 어느덧 끝나고, 좀 더 다른 과거의 일상적인 삶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. 비대면이 만남의 방법이었던 과거에 비해 좀 더 밀접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간이 되어 학회 활동에도 활력이 넘치길 기대해 봅니다. 먼저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속의 가지고 있는 행복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

17대 이병훈 회장님과 임원진들의 활기찬 학회 활동으로 우리 학회의 위상이 높아졌음에 감사드립니다.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지면을 빌어 제 임기중 임원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몇 가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첫째, 식품위생안전성 연구에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 전반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와 이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학회는 식품기업, 정부 및 대학 간의 활발한 학문교류와 정보 확산 등을 통해 집단지성을 이끌어 내어, 사회적 안전 이슈에 대한 믿음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둘째, 세계적인 학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학술지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대외에 발표하여 소통의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학술지의 수준은 그 학회의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. 현재도 학술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,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

셋째, 학회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학회는 이미 IAFP와 상호협력 관계에 있으며 꾸준히 네트워킹을 해왔습니다. 이를 활용하여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여 학회의 대내외 위상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1986년에 창립된 (사)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식품안전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고의 학회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정책 발전에 기여 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.

갑진년 (甲辰年)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. 청룡은 나쁜 운을 막고 길운을 준다고 합니다. 올 한해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